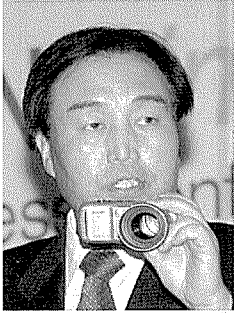


삼성전자, B&O와 명품 휴대폰 공동 개발



세계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을 선도해온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업체인 뱅앤올룹슨(이하 B&O)사와 공동으로 명품 휴대폰을 개발, 시장에 선보일 예정

이다. 삼성전자는 9월 14일 기능 및 디자인 등에서 기존 휴대폰과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개념의 프리미엄급 휴대폰을 B&O사와 공동 개발해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B&O사의 휴대폰 공동 개발은 휴대폰 명가(名家)와 전통(傳統) 오디오 명가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계 휴대폰 업계는 물론, 정보기술(IT)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B&O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휴대폰은 유럽, 러시아 시장 등에서 올해 4분기에 출시될 계획이며 이 지역 내 삼성과 B&O사의 고급 전문매장을 통해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단순하면서도 파격을 추구하는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춰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주게 될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최고급 소비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명품 휴대폰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의 창조적인 선진 기술과 B&O사의 수준 높은 디자인을 휴대폰에 결합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그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제품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O사의 최고경영자(CEO) 톨벤 발레가드는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인 삼성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정말 독창적인 휴대폰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이제 메신저에서도 만난다

LG전자가 이달부터 'BIG4 브랜드 이모티콘 페스티벌'을 개최해 수많은 메신저 사용자들



사이에서 벌써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LG전자의 4대 빅브랜드인 디오스/휘센/트롬/엑스캔버스사의 제품 이미지와 부합되는 감성적인 이모티콘을 제작, LG전자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이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메신저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모티콘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에 착안, 이를 활용한 브랜드 알리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9월 1일 오픈으로, 각 아이콘마다 1일 다운로드 수가 1,000회를 초과했으며, 금주에는 그 증가폭이 더 커져, 1,500회를 넘어섰다.

또한 LG전자는 웹사이트 방문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향후 MSN 외에도 타 메신저(NATE) 시스템으로도 확장할 예정이며, 이모티콘 아이템 또한 최근 런칭된 디오스 컬렉션 제품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업계 최초로 메신저 사용자들을 위한 이모티콘을 개발했다"고 말하고, "향후 새로운 브랜드 런칭시에도 이같은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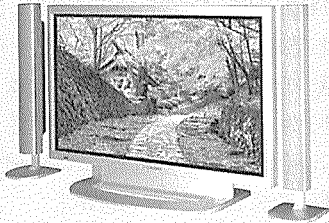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목	일자
1	삼성전자, '삼성슈퍼리그' 승마대회 후원계약 체결	2005.09.20
2	삼성전자, 미국 뉴욕서 패션쇼 마케팅	2005.09.16
3	삼성전자, B&O와 명품 휴대폰 공동 개발	2005.09.15
4	삼성전자, 은나노 세탁기, 식중독 원인균도 99.9%	2005.09.15
5	삼성전자, 세계 최초 초고속 TPS 성공	2005.09.14
6	삼성전자, '베스트 GSM폰 제조업체' 선정	2005.09.12
7	삼성전자, 예게해 네올레아(Neolaila)를 잡아라	2005.09.10
8	삼성전자 DVD롬보, 국내판매 100만대 돌파	2005.09.08
9	삼성전자, 봉사활동도 글로벌 시대	2005.09.08
10	삼성 블루블랙폰, 색채 디자인상 수상	2005.09.08
11	삼성전자 최첨단 광통신 서비스 'FTTH' 토달..	2005.09.07
12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내에 생태공원 조성	2005.09.06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목	일자
1	LG전자, '레드(Red) 스타팀 트롬' 출시	2005.09.16
2	LG전자, 도·경이 함께 지은 '사랑의 집'에 가전제품..	2005.09.15
3	LG전자, 이제 메신저에서도 만난다!!	2005.09.14
4	LG전자, 임직원 특기·전문성 살린 맞춤형 사회공헌..	2005.09.14
5	LG전자, '싸이킹멀터-안티알러지,청소기' 출시	2005.09.13
6	LG전자 국내 최저소비전력 디오스(DIOS) 냉장고..	2005.09.13
7	다니엘 헤니와 현빈, 싸이언(CYON) 새 얼굴로..	2005.09.12
8	LG전자, 해외서 가라오케 바람 일으키다	2005.09.09
9	LG전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경영' 으로 글로벌..	2005.09.07
10	LG전자, 고품격 빌트인 신제품 출시	2005.09.06

대우일렉, 고화질엔진으로 생생하게



대우일렉은 '차세대 진품의 디지털 영상을 구현한다'는 뜻의 디지털 TV 화질 개선 전문 엔진인 'MGDI(Meta Genuine Digital Image)'를 내세워 '써머스(Summus)'라는 브랜드로 디지털 TV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MGDI는 최적의 자연색과 명암비 실현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표현하도록 개발된 디지털 화질 전문 엔진이다.

MGDI 엔진은 6가지 색상에 대한 삼차원 색보정 기술을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얼굴색, 하늘색, 잔디색 등의 색상도 자연색에 가까운 깨끗한 화면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우일렉은 MGDI를 통해 TV 화면의 개별 화소에서 사물의 윤곽선을 추출, 강조함으로써 더 또렷하고 섬세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TV 화질 개선능력뿐 아니라 DVD와 캠코더, PC, 게임기 등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의 개별 영상 신호 특성에 맞춰 최상의 화면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일렉측은 설명했다. 현재 MGDI가 장착된 대우일렉의 주력 제품은 26인치와 32인치 LCD TV와 42인치 PDP TV다.

써머스 상표로 출시되는 PDP TV 가운데 주력 제품인 42인치 PDP TV는 MGDI와 함께 CCF(Capsulated Color Filter) 기술을 도입해 자연스런 색감을 자랑한다. CCF는 사물의 윤곽선 주위에 색상이 얇게 번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기술로, 색과 색의 경계가 분명해져 사물을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

삼성코닝정밀유리, 지역내 독거노인과 어린이 교류 활동 지원

삼성코닝정밀유리(사장: 이석재)는 추석을 앞두고 충남 아산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다니엘 공부방' 어린이들과 함께 지역 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소외되기 쉬운 세대간 교류의 시간을 마련했다.

추석을 맞아 삼성코닝정밀유리 이석재 사장은 9월 9일 다니엘 공부방을 방문 어린이들과 함께 '예쁜 송편 만들기 대회'와 '웃놀이'를 통해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지급하고, 우리 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대한 의미와 유래를 설명, 어린이들이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어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송편을 포장하여, 인근지역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 어린이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송편을 드시게 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어려운 이웃끼리의 교류와 세대간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들은 손주 같은 어린이들이 주는 송편과 재롱을 보며 오랜만에 사람 사는 맛과 명절을 앞두고 무엇보다 큰 선물을 받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공부방 어린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말벗이 되어드리고, 즐거워 하는 모습에 봉사활동의 수혜자가 아닌 봉사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삼성코닝정밀유리는 지역 내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끼리 세대간 교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KEC, 중국 FAB 공장 6인치 WAFER 본격 생산 개시



국내 최대의 개별반도체 업체인 KEC(대표 박정소)는 지난 8월말 중국 강소성(江蘇省) 우시(無錫, Wuxi)의 FAB 공장이 6인치 Wafer 생산체제로 전환을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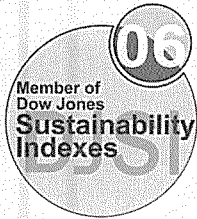
KEC의 중국 우시 FAB 공장은 지난 2002년 4월 현지 생산법인(Wuxi KEC Co., Ltd)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5인치 Wafer 월 9,000매를 생산해 왔다.

KEC는 2004년 8월부터 중국 FAB 공장에 약 100억원을 투입하여 필요설비 및 NECK 공정 보완투자를 통해 6인치 웨이퍼(Wafer) 월 11,000매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들어가,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제품 생산을 통해 총 16품종에 대한 양산화 검증을 8월말에 완료하고, 9월부터는 전량 6인치 Wafer 생산체제에 들어갔다. KEC는 금년 말까지 25품종을 중국 FAB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KEC는 금번 중국 FAB 공장의 6인치 생산체제 전환으로, 주력사업인 소신호용 트랜지스터(SSTR)의 FAB 부문 원가 경쟁력을 40% 이상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SSTR 부문에서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성장시장인 중국시장에 대한 'Made in Market(현지 생산, 현지 판매)'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KEC는 WUXI 및 광둥성 중산(中山, Zhongshan)에 현지 반도체 조립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SDI, 세계가 인정한 삼성SDI의 지속가능경영

삼성SDI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2006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 국내기업 최초로 2년 연속 회원



사로 선정돼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널리 인정받게 됐다고 9월 8일 밝혔다.

따라서, 이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1년동안 DJSI 회원의 자격을 인정받게 됐고 DJSI 공식 로고(Logo)를 기업설명회(IR)와 각종 공시, 대외 홍보자료에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삼성SDI는 국내 기업 최초로 자 유일하게 DJSI에 선정된 바 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DJSI)는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단순히 재무정보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회 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s) 지수 중 가장 권위있는 지수다.

DJSI는 올해 58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전세계 2,508(국내 28개사)대 대형 상장사를 분석해, 이 가운데 최상위 12.6%에 해당하는 24개국의 31개 기업만이 포함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320개 기업 중 54개 회사가 탈락하고 57개 기업이 신규회원으로 편입됐다.

특히, 삼성SDI는 DJSI가 분류한 58개 산업 부문 중 <전자기기(Electronic Equipment)> 부문 총 5개社 중 "산업 선두기업(Industry Leader)"으로 선정됐는데 이는 세계 굴지의 기업인 일본의 히타치(Hitachi), 스위스의 ABB(Asea Brown Boveri), 독일의 지멘스(Siemens), 미국의

에질런트(Agilent Technologies)를 제친 것이다.

삼성SDI가 2년 연속 선정된 데에는 ▲ CEO·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 연차(Annual Report)·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합본 ▲ 국내최초 전사·전제품 EU 6대 유해물질 제거(RoHS-Free) ▲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운영 ▲ 꾸준한 투자와 체계적인 조직구축 ▲ 구체적인 실행 전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 우리는 한국을 배우는 한국 지역 전문가



삼성전기는 해외 법인이 채용한 인력 중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한국 지역전문가 과정을 시행, 현지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9월 19일 밝혔다.

해외 법인의 현지 채용 인력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법인장이 추천한 우수 인력들은 9개월간 현지의 담당 업무를 뒤로 하고, 한국에 건너와 한국어, 한국문화는 물론, 삼성의 기업문화, 조직관리 등에 대해서 배운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1기 한국 지역전문가를 7명 배출했으며, 올해는 중국 텐진(천진), 동관, 태국법인에서 6명의 우수 인력을 선발, 한국과 삼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약 1천시간의 특별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6명의 한국 지역 전문가들은 외부 전문가

관(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의 한국어 전문 교육과 서예, 도자기, 태권도, 음식 등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 학습을 마친 후 설악산, 제주도 등 한국의 지방 곳곳을 배낭여행하며 한국을 배웠다. 이와 함께 삼성의 기업문화, 조직관리 능력, 리더십 역량교육, 제품/기술 교육 등도 병행했다.

삼성전기 중국 동관법인에서 온 찰주이위엔(金桂元) 차장은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한국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며 "상사의 명령을 중시하고, '빨리 빨리'를 강조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주재원과 현지인 사이에 간혹 발생하는 오해를 해소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텐진(천진)법인에서 온 장창탕(張慶堂) 주임은 "한국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국 여행을 했으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와서 산을 한번도 못 봤던 여자친구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산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대덕전자, 친환경 PCB 공정 대체 완료 - RoHS 대응

최근 2006년 7월부터 유럽에서 발효되는 유해물질규제 제도인 RoHS와 관련해 대덕전자는 할로겐(PBE/PBDE) 프리, 무연 솔더링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 개발을 마쳤다고 8월 29일 밝혔다.

대덕전자는 주석과 납을 사용한 표면처리 공정을 유기보호피막(OSP)과 무전해 니켈금도금(ENIG)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대체를 완료했으며, 이미지 공정에서 사용되는 주석-납 솔더링에 대해서는 주석 도금 공정으로 개발을 마쳤다.

또한 완제품 조립 과정에서 리플로(Reflow) 온도가 230℃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른 PCB의 내열성과 치수 안정성이 중요

해지는데, 대덕전자는 높은 열중량 소재에 대한 특성 분석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대덕전자는 이와 함께 난연재인 할로겐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원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현재 동박적층원판(CCL), 프리프레그, 레지스트 잉크에서 할로겐 성분을 제거한 자재를 개발, 특성 시험을 끝냈다.

광전자 LED - 대북 사업 참여

익산 광전자의 LED부품이 북한의 차세대 IT산업 육성 전략을 이끌 남북경협 사업분야로 선택돼, 전주공업대학의 IT기술과 함께 평양에 진출하게 됐다.

특히 광전자의 기술이 직접 평양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국가적으로는 삼성과 LG에 이은 것이다. 광전자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주공업대학과 (주)중도산업개발이 지난 8월 22일, 평양에서 남북경협 사업의 북한 창구인 민경련(민족경제연합회)과 'LED전광판 입막공' 공장 설립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광전자(주)도 이 사업에 사용되는 LED부품 전체를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하게 된 것이다. 이날 평양에서 가진 공장 설립 계약식에는 남측에서 이해수 광전자 생산 총괄부장과 (주)중도산업개발 김은수 회장이, 북측에서는 삼천리총회사 윤완철 사장 등 민경련 산하 IT분야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전주공업대학 이종하 학과장은 'LED전광판' 기술의 특허권 소유자로 향후 기술이전 등을 담당키로 했고, 남측의 (주)중도산업개발과 북측의 삼천리총회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남북 양측의 경협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측은 광전자의 LED부품을 직접 검토하고, 선택함으로써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았다.

광전자(주)의 LED부품 기술은 지난 6월,

일산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LED EXPO에 출품하기도 하였고, 국내 유수의 전광판에 대량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오채성에도 60억원 규모의 전광판을 세운 경험이 있다. 남측은 11월중 설비와 생산을 위한 기기와 부품을 북측에 보내고 연내 시험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사업비 규모는 극비 사항으로 분류됐으며, 남측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일부는 통일부의 경험 자금에서 일부 충당될 예정이다.

광전자(주)의 이 부장은 "광전자(주)의 부품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국가간 무역과 투자를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하고, "전광판 사업은 북한이 미래 'IT산업'의 추진과정과 의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S전선, 패킷프론트사와 전략적 사업제휴

LS전선은 스웨덴 국적의 패킷프론트사와 FTTH(광가입자망 / Fiber to the Home) 관련 국내외 마케팅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키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8월 30일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은 조준형 LS전선 상무(통신사업부장)와 마틴 썬먼(Martin Thunman) 패킷프론트 사장 등 양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S전선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사업제휴는 LS전선의 FTTH 통신망 솔루션과 패킷프론트의 서비스 및 가입자 운영/관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유비쿼터스 시티, 호텔 및 아파트 등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양사의 제휴로 LS전선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TTH 통신망 솔루션 기반 위에 사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LG마이크론-LG 이노텍 연구소 기공식



LG그룹 계열 전자부품기업인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이 9월 8일 한양대 경기 안산 캠퍼스에 부품연구소를 설립한다.

지난 2월 수도권 지역내 부품·소재 관련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한양대에 전자부품연구소 설립을 추진키로 합의한 양사는 이날 한양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량 한양대 총장, 허영호 LG이노텍 사장, 조영환 LG마이크론 사장 등이 참석했다.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예정인 이 연구소는 약 330억원이 투입돼 양사 연구원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 6,400평,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세워질 전망이다. 이 연구소는 25년 후 한양대에 기증된다.

양사는 이번에 설립되는 연구소를 통해 우수 연구개발(R&D) 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안산지역 내에 조성중인 부품소재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이 연구소를 부품·소재 연구단지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